"인권 기본 조례 제정해야"

인권위 설문, 광주·전남 지방의원 10명 중 7명 "필요하다"

5·18 30주년 앞두고 광주시·전남도 움직임 '주목'

5·18 광주민중항쟁 30주년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권 기본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 지방의원 10명 중 7명이 '인권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광주시와 전남도의 조례 제정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5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광주·전남의 지방의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80명)의 72.5%(58명)는 '(인권 조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항목별로는 '필요하다'가 응답자의 57.5%(46명)로 가장 많았고,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도 15%(12명)에 달했다. 반면 '필요없다'는 응답은 11.3%(9명)에 그쳤다.

이처럼 지역 의원들의 '인권 조례'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나면서 향후 '인권 기본 조례' 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5·18 민중항쟁 30주년을 앞두고 광주 인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전국 최초의 '인권 기본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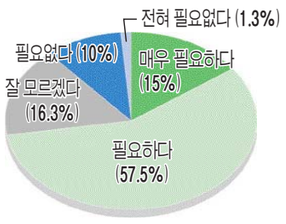
광주시는 지난해 5월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를 제정하고 대내외에 '인권 도시' 육성을 선포했다. 그러나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조례 제정 이후 예산 및 전담 인력 편성 등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광주시의회 이명자 의원은 이달 중순께 기존 '민주·인권·평화도시 조례'에 인권 관련 내용을 대폭 보강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전남도의 '인권 기본 조례' 제정 여부에도 시선이 쏠린다. 전남도는 오는 11월 중순께 인권위 광주사무소와 전남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포괄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전남도가 '인권 조례'를 제정할 경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권 기본 조례'를 갖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 앞서 경남 진주 등은 '인권 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나 시민공론화 부족 등을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1980년대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인권 조례' 제정 움직임에 동참하며 '인권 선진지'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

■광주·전남 지방의원 '인권 조례' 필요성 설문 결과



이정강 인권위 광주사무소장은 "'인권 기본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체계가 갖춰지게 된다"며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민들의 책임과 의무 등이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일보는 최근 '인권 조례' 제정 작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 보는 기획물 '일본 인권조례 도시를 가다'를 연재합니다. ▶1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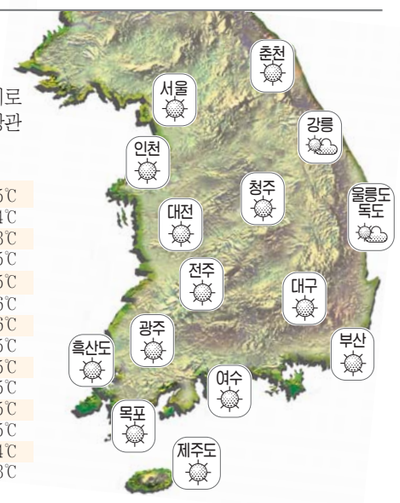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31분 해짐 18시 10분 달뜸 18시 58분 달짐 08시 23분

일교차 커 감기 조심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으며 일교차가 커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광 주	맑음	12/25℃
목 포	맑음	13/24℃
여 수	맑음	17/23℃
완 도	맑음	13/25℃
구 례	맑음	9/25℃
해 남	맑음	10/26℃
장 흥	맑음	10/26℃
고 흥	맑음	11/25℃
순 천	맑음	13/25℃
영 광	맑음	10/25℃
진 도	맑음	12/25℃
전 주	맑음	9/25℃
남 원	맑음	16/24℃
흑산도	맑음	17/23℃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먼바다	북~북동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0~1.5m
먼바다	북~북동	1.0~2.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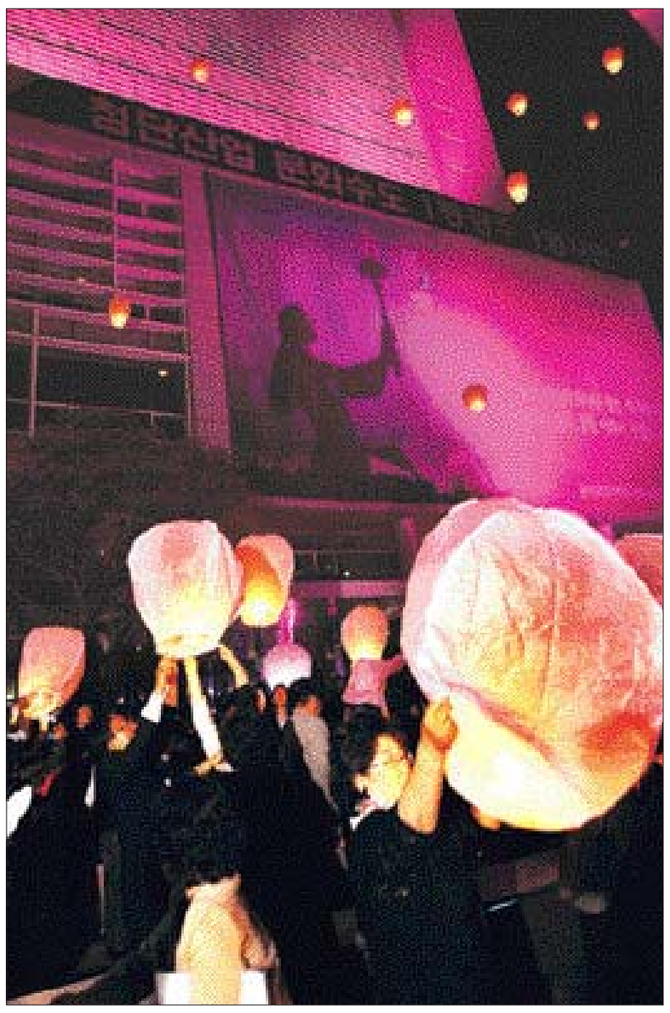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보통	주의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먼바다	북~북동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0~2.0m
먼바다	북~북동	1.5~2.5m

	밀물	썰물
목포	03:05 15:38	08:15 20:42
여수	10:07 22:08	03:39 16:04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7(수)	8(목)	9(금)	10(토)	11(일)	12(월)
날 씨						
최저/최고	13/25	14/22	12/21	11/21	12/22	12/23



유방암 예방 '핑크빛 풍등' '유방암 예방의 날'인 5일 오후 7시 광주시청 앞 광장 야외무대에서 대한암협회 주관으로 '2009 유방암 예방 및 광주시청사 핑크 조명 점등 행사'가 열렸다. 참석자들이 유방암 퇴치를 기원하는 뜻을 담아 '풍등'을 날리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 환자 수도권 유출 심화

진료비 5년새 2배

전남도 44% 증가

광주지역 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비가 5년 동안에 배 가까이 폭증했으며, 전남지역도 50% 가량 가량 증가하는 등 수도권으로의 지역 환자 유출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비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환자 수는 소폭 증가한 것에서 보듯 수도권을 찾는 환자의 상당수가 의료수가가 높은 암이나 중증질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승조 의원(민주당)이 5일 발표한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광주지역 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총진료비는 311억원(환자수 7만4천471명)이었으나 5년만인 2008년에는 607억원(9만9천7명)으로 95%나 늘었다.

광주지역 수도권 진료비는 2005년부터 급증, 395억원(2005)→460억원→527억원→607억원(2008년)으로 매년 60~80억원 가량 증가하고 있다.

전남지역 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총진료비는 같은 기간 1천3억원(18만8천967명)에서 1천440억원(18만9천211명)으로 44% 증가했다. 전남지역 진료비는 2006년 1천400억원대에 진입한 이후 증가세가 주춤한 상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공원 아랫 광장 등 평화시위구역 7곳 폐지

경찰이 광주공원 아랫광장 등 전국 7곳에 시범적으로 도입했던 평화시위구역을 폐지키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5일 "올해 상반기 시범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집회 유치 건수가 저조하고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국 7곳을 평화시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준법 집회를 열면 플래카드 거치기를 주고 시위 내용을 홍보해주는 등 혜택을 제공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전남 119개교 '석면철망' 과학실험

특수학교 사용률 전국 최고

전남지역 초·중·고교 119곳에서 과학 실험 수업 때 인체에 유해한 석면함유 철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은 장애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의 석면철망 사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전남지역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845곳 중 석면철망을 사용중인 학교는 119곳으로 14.1%에 이르렀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26.6%로 가장 높았고, 경기 17.1%, 대전 14.8%, 전남 14.1% 등의 순이었다. 전국 평균 사용률은 8.8%였다.

전남은 특히 특수학교의 석면철망 사용률이 28.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와 인천, 제주, 충북, 경북, 경남 등 6개 시·도 소재 초·중·고교는 석면철망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석면함유 철망은 과학실험 등에 사용되는 학습 기자재로, 인체의 유해성이 인정돼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학교 5곳 중 1곳 발암물질 '라돈' 노출

전남지역 학교 5개 중 1개교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Rn)이 기준치 이상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실내 라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및 관공서 등 일부 시설에서 라돈이 기준치 148베크렐(Bq/㎥)보다 최대 12배나 높은 1천788Bq로 측정됐다.

환경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 6월까지, 관공서 440개와 학교 660개소 등 공공건물 1천100개를 대상으로 라돈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초등학교의 경우 라돈 검출량이 기준치보다 최대 12배 높은 1천788Bq, 관공서의 경우 4.4배 높은 650Bq이 검출됐다.

특히 전남지역의 경우 조사한 학교 88개 중 15개에서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해 측정됐으며 특히 가을과 겨울에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남지역 관공서 중에서도 2곳(88곳 조사)에서 라돈이 기준치를 넘어 측정됐다. 관공서의 경우 전국에서 라돈이 기준치를 넘은 곳은 조사 대상 439곳 중 8곳뿐이었다.

광주지역의 학교와 관공서에서는 라돈이 기준치를 넘어 측정된 경우가 한 곳도 없었다. 라돈(Rn)은 암석, 토양 내에 존재하는 우라늄이 방사성 붕괴를 통해 생성되는 무색·무취의 기체로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석면과 함께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